

“자사고·후기 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본안 결정까지 “불합격한 학생 해당 학교군 일반고 진학 못할수도”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다른 후기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 시행령에 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에 따라선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

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며 “중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을 본안심판의 결정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를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해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됐다. 당초 고등학교 입시에서 기존에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해 자사고에 불합격해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 선발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한달여 후인 지난 3월에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선고까지 시행령에서 자사고를 전기 선발에서 제외하는 부분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김승환 교육감 3기 시작은 아이들과 함께

이서초서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 금산초에선 라돈 저감 시설 등 점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3기 시작을 아이들과 함께 한다.

김 교육감은 직선 3기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8시 완주 이서초로 가,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도 일일 봉사활동을 펼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12분 통학차량에 올라 운행시간 30여분 동안 아이들의 승차와 안착 시 착용 지도 등 안전한 탑승을 도운 뒤, 학교에 도착해서는 일일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차를 돕는다.

김 교육감은 이서초 학생들의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김제 금산초로 이동해 라돈 저감시설 설치 및 관

리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산초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수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148베크렐(Bq)/m³)를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금산초 관계자들과 함께 라돈 저감시설(공기순환기) 등을 둘러보고, 적극적인 환기와 공간 재배치 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의 취임식은 3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전북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개방된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창업아이템 프로그램 통해 창업지원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팀당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2018년 1차 모집에서는 각각 5천만원이 지원되는 기술 분야(전문기술인력) 창업에 원예산업학과 오석규 교수 등 두 명의 교수가 선정돼 산·학 연계형 창업선도대학으로서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석규 교수는 ‘공정 육묘’ 등 다수의 종자 관련 연구 참여와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육종·종자 유통에 대한 높은 숙련도와 기술력,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인정받아 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10개월간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개발비, 홍보비, 시범인증비 등 총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는 교수 창업 지원을 계기로 ‘1학과 1기업 1특허’ 실천을 통해 학과-기업-연구소가 함께하는 산·학·연 일체형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학과에서 돈을 벌면서 다닐 수 있는 학생 일자리 창출형 모델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단 내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오석규 교수는 “이번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으로 국내 도시농업 및 유기농업에 필요한 종자를 개발·보급해 도심 농업을 대중화하고, 이를 통해 도내 농업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를 이바지하겠다”며, “재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반의 창업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주최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열렸다.

전북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대회’ 성료

학생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 기업이 투자 ‘팬창 가능 무선조종 구멍튜브’ 대상 수상

팬창이 가능한 무선 조종 구멍 튜브, 의류 속 미세먼지 제거기, 목재 반려견 하우스, 아크릴 한지를 활용한 조명체이드, 아이들을 위한 단청미술 교육 키트. 이 모두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만든 공학설계 작품들이다.

이는 최근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주최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실제 전시된 191점 작품들 중 기업들이 상용화 가능성을 엿보고 직접 투자하기로 한 작품들이다.

포퓰러하게 191개 아이디어를 둘러 본 기업 관계자들은 흥성하고도 재기 넘치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육선 아이디어 마켓을 통해 13개 기업이 18개 팀에게 투자를 약속하는 등 1천여만 원의 계약 체결도 이뤄져 풍성한 대회가 됐다.

학생들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 작품이 실제 기업에서 상용화 될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무선 조종 구멍 튜브(Expensible Radio Control Life Tube)라는 아이디어 작품을 낸 기계공학과 임재현, 이상준, 류성찬, 이희근, 정민철, 이승현 학생들로 이루어진 U-tube 팀에게 돌아갔다.

임재현 학생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고, 대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우리의 아이디어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 무엇보다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전북대 학생들의 문제분석과 창의적 해결 능력의 수준이 매우 높다”며 “작품의 아이디어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사업화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재훈 기자

교육청,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열어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9일 오후 도교육청 8층에서 초등 2학년 첫걸음 지원학교 학습터담학생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담임교사 이야기 나눔터’를 운영하여 학습터담학생의 성장을 돕는 기초학력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초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12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동시집 ‘달려라, 택배 트럭!’의 저자인 임미성 성당초 교감이 ‘동시로 찬찬히 배우는 행복한 공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 교사들 간에 학교 운영 상황 및 학습터담학생 지도방법을 토론프로젝트 형식으로 공유하는 이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졌다.

‘초등 2학년 첫걸음 지원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 입문기 학생들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을 중심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수업(국어, 수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다.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학교 69교를 선정, 협력강사를 통한 1대1 맞춤형 학습지원 및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고등학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담당자 이야기 나눔터가 운영된다.

/김재훈 기자

올 대학 신입생, 일반고 출신 줄었다

교육부, 4년제 일반대 185개교 분석 서울 주요 10개대는 비율 변화없어 특목고·자율고 출신 비율은 감소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고, 특수목적고와 자율고 출신 비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신입생 선발 결과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에 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25만9004명(76.2%)으로, 지난해(76.7%)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반면,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출신은 올해 4.2%(1만4296명)로 전년(4.2%)과 동일했고, 자율고 출신도 10.2%(3만4032명)로 전년(10.2%)과 똑같았다. 특성화고 출신은 1만4936명(4.4%)으로, 전년(4.3%)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줄고,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비율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2018학년도 신입생들 가운데 올해 2월 졸업자 뿐 아니라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 삼수생 등이 섞여 있다보니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재학교와 검정고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다닌 학생들의 비율은 5.0%로 지난해(4.5%)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만 놓고 보면 일반대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반면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0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55.3%로 전년(55.3%)과 동일했다. 반면 특목고출신 학생 비율과 자율고 출신 학생 비율은 15.3%, 15.4%로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줄었다.

농어촌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3만5212명으로 전체 입학생 33만1972명 중 10.4%였다. 지난해 3만3070명(9.7%)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외에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 입학자 수가 증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